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민수기 1장 1-4절, 16-19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훈련을 받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자아가 죽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 본문 주일설교 (10/11) 중 발췌·정리 -

”

민수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삶의 과정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친히 광야 한가운데 '회막(성막·중거막)'을 세우고 백성들과 거처를 함께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나 공장 없이도 옷과 신발이 해어지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을 통한 믿음의 세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200만 명의 생존 역사를 이성으로 수용하지 못해 전체주의 통치 체제인 공산주의를 고안해 냈으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말씀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먹는 양식'이자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나의 실제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 안 법궤는 조각목(인성)에 순금(신성)을 입힌 것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거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성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때, 말씀이 안에서 살아 움직여 불신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육적 고민인 '의식주(의복, 양식, 거처)'의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해결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근본적인 죄인인 내 존재를 회개하지 않고는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어린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오늘날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라는 말씀처럼 그

리스도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에 참된 평안을 주는 옷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이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사치와 겉치레라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을수록 육체를 가꾸는 것 같지만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 끼 밥은 혈기와 염려, 유혹에 빠지는 에너지가 될 뿐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 쪼임매로 배를 채우려던 탕자처럼 세상 양식에 주린 자들에게,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 영생, 세상과 죄를 이길 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서 안식할 집을 마련하려 평생을 수고하지만, 세상의 집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애물단지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주님이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를 안아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보를 명확히 밝혔듯, 성도는 "나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성 60만 명이 한 군대로 편성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개인 한 사람의 신령함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한 군대)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 군인이 자아를 죽이고 명령에 복종하듯, 성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가르처럼 부서져 서로에게 배우며 연합해야 합니다.

눈앞의 빵과 육신의 요구에 매여 염려하는 옛 생각을 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과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Clothed, Fed, and Sheltered in Christ

After leaving Egypt, the Israelites stood in the Sinai wilderness, and God told Moses to count every man 20 years or older who could go to war. The journey ahead would last 40 years. About two million people would walk through a desert where nobody grew crops or made clothes or shoes. Yet in the end, God reminded them that their clothes had not worn out and their sandals had not worn off their feet. They had not provided anything for themselves. God was with them, and He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For the believer, Jesus is God's answer to our needs.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our "all in all." He takes care of the three things we worry about most: clothing, food, and shelter.

The first is clothing. After Adam and Eve sinned, they felt ashamed and hid behind leaves. Nothing they made could cover their shame, so God clothed them in animal skins,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Galatians 3:27 says that all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themselves with Christ. No new outfit can quiet a guilty heart, but Christ can, and those who are clothed in Him are freed from the slavery of luxury and outward appearances.

The second is food. We eat to stay alive, but the food of this world cannot truly fill us and we are left starving for something real to sustain us. This type of physical nourishment still ends in aging, sickness, and death. Jesus said

that He is the true bread, and that people live on every word God speaks. The Bible is not just a book to read. God's Word is spiritual food that nourishes us. Only when we consume the food of the Word do the assurance of salvation, eternal life, the power to overcome sin and the world, and the ability to love our enemies flow out from within us.

The third is a home. People work all their lives to provide a home where they can rest on earth, but worldly houses cannot give true rest and often become a burden instead. Jesus said,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and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He prepared an eternal dwelling place for us in Him. The Bible says the Lord is our home. True rest is found not in material houses, but in abiding in Christ, our eternal refuge and fortress [Psalm 90:1; John 15:4]. Therefore, Jesus said to seek first God's kingdom, and everything else will be given to us.

Now we can see why God counted the people. Over 600,000 men were written down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nd tribes. Each one had to know who he belonged to and say so. Our faith starts the same way. We no longer belong to Adam. We belong to Christ, and we have moved from death to life. Paul says that if we belong to Christ, we are part of Abraham's family and will receive what God promised.

God did not want a crowd of

strong-minded individuals each going their own way. In the same way, He saved us not only as individuals but to form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with Christ as its head. Just as soldiers die to their individuality and ego and learn to obey commands through difficult training, believers must lay down their own pride and stubbornness and be broken down in order to become united. Our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the Spirit teaches us to live as one body, one church, with Christ as its head. Being born again is a wonderful gift. We are saved so that we can join together, learn from each other, and teach each other with humble hearts.

The wilderness teaches that God supplies everything for those who belong to Him, and the cross proves it. Everyone around us is still sewing fig leaves, working for bread that does not satisfy, and building houses that cannot give rest. We have been given what they are searching for. So, let go of the old thinking that worries about food, clothes, or a place to rest. When we first seek Jesus Christ, the Creator God will supply every single thing we need in our lives. Through true repentance, surrendering our own thoughts and egos and turning toward the direction of the Word, we live each day in victory through the Holy Spirit.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유치부실
유년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

